



불교대학을 찾아서

③ 전북불교대학



전북불교대학은 이론 중심의 강의를 탈피해 실수를 병행, 학인들의 체험교육을 강조한다. 사진은 지난 3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발우공양.

1998년 현재의 전주 삼전동 원산불교회 관으로 학사를 이전한 전북불교대학은 전북지역 재가신행단체의 요람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350명의 학사에 법당과 강의실, 시청각 교육실을 갖추고 법당과 강의실을 연결하는 환관장비와 녹음시

은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타종교 또는 종교를 갖지 않은 학생들이다. 이들이 전북불교대학을 찾는 이유는 사찰에 적을 두지 않은 특성과 활발한 대외 봉사활동에서 얻은 높은 인지도 때문이다. 여성불자보다도 거사불자들이 많은 점 또한 전북불교대학의 특징 중의 하나다. 최근에는 20~30대 수강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를 위해 교과과정을 편성한 전북불교대학은 경전독송회, 자원봉사회, 문화재 답사회 등의 동아리

호남불교계 중흥 이끌어온 재가 명문교

동아리활동 의무화...이론중심교육 보완

통신반과정 개설, 타지역서 수강가능케

활동을 의무화해 이론 중심의 교과과정을 보완하고 있다. 이를 동아리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만남의 장이면서 공동 신행의 장이기도 하다.

경전독송회의 경우 <금강경>(천수경) 등 각종 경전 독송을 기본으로, 매일 전주 군경묘지에서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상을 당한 가정을 찾아 독경경사도 펼치고 있어 찬사

설을 보유, 현대적인 교육 여건을 갖췄다. 2000년부터는 통신반 과정을 개설해 타지역에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강건기 학장은 "전북불교대학 졸업과 동시에 재직사찰을 갖고 가족이 함께 신행하는 교육을 실현해 왔다"며 "연수원과 지역 포교당을 개설하고 정규과정의 대학원 대학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63)226-7878 전주=박봉영 기자

"불교가 삶의 밑거름"

경전독송회 류성근회장



"가르침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아내도 함께 등록했죠. 나중에는 아내가 더 좋아하더군요."

전북불교대학 동아리 경전독송회 류성근(54·사진) 회장은 불교대학에서 배운 불교가 삶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팔복동에서 '팔복금방'을 하는 류 회장은 바른 일에도 불구하고 경전독송회의 봉사활동에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몸으로 실천하는 보살행을 펼쳐 대학내 불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류 회장은 "어려운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다"는 서원을 밝혔다.

봄이 다 가도록 나뭇잎 채 묵묵하던

하리가웅의 보리수들은 5월이 가까워야 봄바람 속에 귀여운 새 잎사귀들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수 잎새는 미루나무 잎새처럼 생겼는데 미루나무 잎새보다 끝이 더 골쎩하고 길니다. 건기에 들어선 네 팔에서 보리수들이 살아남으려면 그 뾰족하고 긴 잎 끝에 밤이슬이라도 모아야 하나 봅니다. 동 틀 때 보면, 잎 끝마다 이슬방울이 매달려 있습니다.

하리가웅의 여러 보리수들은 허리나 어깨 위 또는 손가락 사이에 난초를 비롯한 여러 더부살이 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리수 잎 끝에 매달린 이슬방울은 그 더부살이들의 목을 추겨주기도 하나 봅니다.

하리가웅 연못가 보리수 밑은 버림받은 송아지들의 거처이기도 합니다. 네팔에서는 소를 잡는 게 금지되어 있지만 소를 내쫓는 것마저 금지되어 있지는 않나 봅니다.

버림받은 송아지들은 쓰레기 하치장에

시인 김흥성의

네 팔 사는 이야기

<2> 보리수

연못가 보리수 버림받은 송아지 거처

부인네들 새벽치성...동물 먹을것 남겨

서 쓰레기를 뒤져 먹고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카트만두에는 쓰레기 하치장 같은 게 없었습니다. 아직 플라스틱이 대중화되기 전인 10년 전에는 버려질 쓰레기라는 건 별당초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플라스틱 봉지에 공공 싸매서 버려지는 것들이 그 때까지는 비료로 쓰였고, 사료가 되어있던 것입니다.

네, 하리가웅의 버림받은 송아지들은 쓰레기 하치장에 쌓이는 플라스틱 봉지를 터뜨려서 그 속에서 나오는 콩 껍질이나 밥알이나 무 쫄다리 걸 먹고살면서 밤이 되면 보리수 밑에서 모여 잡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기 무섭게 다시 쓰레기 하치장

으로 달려갑니다.

어느 날 오후에는 그 송아지들이 우리 집이 있는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왔더군요. 송아지들은 골목 담 밑에서 자라는 풀을 뜯어 먹어 사는 아주머니 한 분이 대문을 나서다가 송아지들을 보고 쫓쫓 혀를 차더니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더히(요구르트)의 일종인 거저더 그 놈들에게 먹이더군요.

더히를 얻어먹는 송아지들의 표정은 어찌면 꼭 그렇게 어미 품에 돌아온 어린애 같던지...

네팔에는 그 아주머니처럼 짐승을 자기 새끼처럼 여기는 아주머니들도 참 많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들의 대부분은 새벽마다 보리수에 치성을 드리는 아주머니들입니다. 아주머니들이 치성을 드릴 때 보리수 밑에 먹을 것을 놓는 이유도 그런 송아지나 까마귀나 개들을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열흘전 아들 가슴에 묻은 쪽방 할머니

"이젠 누굴 기대고 살지..."

열흘 전, 아들을 가슴에 묻었다. 화장터는 따라갔다. 하지만, 아들의 유골을 뿌리기로 했던 인천 월미도 앞바다까지는 차마 갈 수 없었다. 아들이 가는 마지막 길, 행여나 늙은 어미가 눈에 밝히기라도 할까봐.

긴 한숨 끝에 되돌아오는 아들 생각. 이순자 할머니(81)가 낡디 낡은 소형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들고는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숨 거두는 것도 보질 못했어. 온몸이 퉁퉁 부은 아들이 목에 가래가 걸려 숨조차 쉬지 못할 땐 어미의 맘이 오죽했겠어? 지켜 볼 수 없어 집에 잠깐 왔더니,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거든.

방에서부터 발발에 차이는 휴대용 가스렌지, 두 겹 세 겹 겹겹이 쌓아놓은 종이수납장과 그 위로 놓인 이불더미들. 어느 것 하나 제 때 꺼내 쓸 수 없을 정도다. 방안이 워낙 비좁다 보니, 얼마 되지 않는 세간살이에 짓눌려 이 할머니가 맘 놓고 발뺌고 눕고 지낼 공간조차 없다.

요새 들어 이 할머니에게 30년째 살고 있는 좌골신경통이 다시 도졌다. 게다가 6년 전 백내장 수술을 했던 왼쪽 눈까지 말썽이다. 큰 맘 먹고 병원에 갔었지만,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만 듣고 마음만 심란해졌다.

끼니 때가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방 앞에 걸터앉아 국을 끓여 먹는 할머니.

나. 그나마 여름이나 되니까 방문이라고 열어 놓고 밥을 해먹지, 겨울에는 어렵도 없나.

지난 겨울에는 큰 일 날 뻔 했었어. 방 안에서 밥해먹다가 불에 타 죽는 줄 알았어. 가스렌지에서 가스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 답요 봐, 검게 그을렸지. 너무 놀라서 이걸로 떨어 버렸었거든."

이 할머니의 한달 생계비는 정부로부터 받는 26만원의 생활 보호대상자 지원금이

심한 좌골신경통·왼쪽 눈수술 고통

생활비 아끼려 정보지 오려 휴지로



이순자 할머니가 열흘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의 사진을 맡은 이틀여다보고 있다.

아들이 새벽2시에 떠났다고... 좋은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해주고 보낸 가난이 원망스럽기만 해. 아들이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아들 김석배 씨의 임종을 못 지켜던 것이 '한'으로 맺혀버린 할머니. 6.25 전쟁 중에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이기에 더더욱 마음이 사무친다. 홀로 국수 장사며 행상을 해가며 억척스럽게 키웠던 아들. 4년 전 아들 김 씨가 방광암 진단받고 병원을 전전 했을 때에도 막연히 나를 거라고 믿었던 할머니였다. 그동안 식당 일하며 벌어들인 돈을 죄다 아들 병원비로 쏟아 부었던 이 할머니. 지금은 채 두 평도 되지 않는 '쪽방'에서 살고 있다.

비좁은 방. 공색 맞게 벽에 걸려 있는

전부다. 몇 해 전부터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요량으로 생활정보지를 모았다. 오려놓고 휴지로 쓰고 있지만, 매달 들어가는 약값과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공요금 감당은 언제나 벅차다.

한낮의 복사열. 방안에 금세 땀으로 만들어버리는 오후. 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친척도 없고, 하나 남은 아들도 먼 저 갔으니 누굴 기대고 산다지. 이제 나도 갈 때가 됐는데. 내가 죽으면 누가 장례나 치러 줄는지..."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2가 139-15 10동2반

전화번호: (02)921-3510

후원계좌: 농협 026-02-096530(예금주 이순자) 김철우 기자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하계수련회 안내

최고의 참선 수행도량인 백양사에서는 새롭게 신축한 수련관에서 다음과 같이 2002년도 참사람 하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1. 불기 2546(2002)년도 하계 수련회 일정

차수	수련기간	참가인원		계
		여	남	
30	7. 25(목) ~ 7. 28(일) (3박 4일)	50	50	100
31	7. 31(수) ~ 8. 4(일) (4박 5일)	50	50	100
32	8. 8(목) ~ 8. 11(일) (3박 4일)	50	50	100
33	8. 14(수) ~ 8. 18(일) (4박 5일)	50	50	100

2. 참가자격: 20세이상 ~ 60세미만 (정원관계로 신청자중 소정의 심사로 선발)

3. 접수기간: 2002년 7월 17일(수) 오후 6시까지(미리 예약 접수)

4. 접수방법: 서류전형, 전화예약 접수후 신청서류 작성(신청서는 홈페이지 참조)

5. 접수처: 백양사 중무소 홈페이지(www.baekyangsa.net)

전화 (061) 392-7502, 팩스 (061) 392-2081

6. 장 소: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악수리 26 참사람 수련관 (우 515-854)

7. 수련회비: 7만원(4박 5일), 6만원(3박 4일)

8. 준 비 물: 필기도구, 세면도구, 운동화 지참 (수련복 지급, 수련후 반납)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다정 합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제20대 주지로 당선되신

진각스님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기 2546년 6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신도회 회 장 김수경

신도회 부회장 유석근 박금자

목련회장 조인상 총무 김진화	좌선회장 박금자 총무 정선교	금강회장 배진희 부회장 이상현 부회장 양희상 총무 김석원	함창단장 조정희 회장 김미희 총무 황은자
운불련회장 김창희 총무 윤석영	청년회장 김규석 총무 강운태	수련회 간사 정선휘 외 신도일동 합장	